

# 동남방언 성조의 연구와 검토

이 동 화

## <목 차>

I. 서론	2.3 성조형
II. 본론	2.4 성조의 변동과 규칙
2.1 선행연구의 검토	III. 결론
2.2 성조소	

## I. 서론

1.1 국어음운론 연구에 있어서 최근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생성음운론은 국어학 발전에 기여할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로 본절음소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을 뿐 이른바 초본절음소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다소 소홀히 해 온 편이다.

더구나 70년대 후반 Goldsmith(1976) 이후 복선음운론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음운단위들이 단선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던 종래의 입장을 벗어나 본절음소와 초본절음소가 각기 자립적인 층렬을 이루고 있다고 보게 되었으며, 아울러 초본절음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싹트게 되었다.<sup>1)</sup>

본고에서는 이런 배경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동남방언의 성조<sup>2)</sup>에 대해 자립본절음운론의 입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성조론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2 국어성조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비교적 꾸준히 전개되어 왔고 그 업적도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자립본절음운론의 입장에서 국어성조론을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이상익(1978), 정국(1980) 등이 있다.

2) 동남방언이 성조언어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일부의 견해처럼 단순히 액센트 언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비록 Pike(1948)류의 4가지 조건을 갖춘 성조언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어절성조체계로 보는 허웅(1954), 김차균(1980) 등의 견해를 본고에서는 따르기로 한다.

중세국어의 성조에 대한 연구로는 정연찬(1960), 김완진(1973), 이상익(1978) 등이 있고, 현대국어의 성조를 다룬 논문으로는 허웅(1954), 문효근(1962), 김영만(1966a), 김차균(1980), 정국(1980), 김성환(1983), 조현숙(1985) 등이 있으며, 성조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함께 다룬 논문으로는 허웅(1955), 김영만(1966 b, 1972, 1974), 문효근(1974), 정연찬(1974), Ramsey(1974) 등이 있다.

한편, 현대국어의 성조 연구에 있어서 그 방법론적인 경향에 따른다면 허웅(1954), 김영만(1966), 문효근(1974), 정연찬(1974) 등은 구조음운론적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김차균(1980), 정국(1980), 김성환(1983), 조현숙(1985) 등은 생성음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겠다.<sup>3)</sup>

**1.3** 중세국어의 성조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의 규명을 위해서도 흔히 성조언어라고 불리어지는 동남방언의 성조에 대한 철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논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동일한 동남방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경북지역과 경남지역이 성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까닭에 본고에서는 우선 경북방언을 중심으로 성조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검토한 다음, 성조소와 성조형을 설정하고 나아가 성조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 Ⅱ. 본 론

### 2.1 선행 연구의 검토

#### 2.1.1 허웅(1954)

본자 자신의 언어인 김해방언을 중심으로 성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한 논문이다. 경남방언의 성조소<sup>4)</sup>와 성조형을 음절수에 따라 분류하

3) 이 밖에도 동남방언의 성조를 다룬 논문으로는 『이영우(1974), 박종수(1980, 1981) 등이 더 있으나, 이들은 성조의 부분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방언의 음절·음조는, 낮은 가락, 가운데 가락, 높은 가락의 세 가지가 있어서’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조소에 대한 설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이미 김영만(1966 a), 정연찬(1974) 등에서 비판을 가한 일이 있으나, 다시 몇 가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성조소의 설정 문제인데, 경남·북의 방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저조, 중조, 고조의 세 가지 성조소로 구분하고 있으나, 적어도 경북방언의 경우에는 화자들의 언어의식으론 고조, 저조의 두 개면 충분하다고 본다. 김영만(1966 b), 문효근(1974) 등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다음으로 성조 관찰의 정확성이 문제되는 바,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같은 책 : 102).

2음절 체언에서 :

[고고조] 포리(攆)피리(笛), 도구(蚊), 에디(母), 번개(電), 그물(網), 구름(雲), 가지(枝)……

3음절 체언에서 :

[고고조] 하래비(祖), 올챙이(蛙), 무지개(虹), 트깨비(鬼)

이런 성조형은 2분법에서는 저저형, 저고저형 정도이고, 3분법에서는 중중형, 중중중형 정도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성조 기술의 단위를 어절의 집합인 문장으로 확대한 것은 아무래도 무리하다.<sup>5)</sup> “말을 빨리 할 때는 물론 이러한 높낮이가 변하는 일이 많으나, 조심하여 천천히 말할 때는 이러한 고저가 일정해 있다”(121쪽)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발화에서 상황중립적인 언어행위를 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1.2 김영만(1966 a, b, 1974)

정밀한 음성학적 관찰을 통해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음운론적 기술과 음성학적 사실이 혼동되어 오히려 성조론의 기술에 복잡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sup>6)</sup> 이것은 국어가 중국어같은 순수한 성조언어가 아닌 일본어 같은 액센트언어라는 논자 나름의 강한 인식에서 우러나온 것 같다. 알 시기의 논문과 뒷 시기의 논문을 비교해 보아도 태도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5) 이러한 기술 태도는 김차균(1980) 등 일부 성조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정연찬(1968 : 577)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다. “김씨의 2음절 이상의 성조 기술이 아무리 정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음성학적 사실과 음운론적 사실의 혼동에서 온 결과라면 그 정당성을 잃고 말 것이다.”

#### 4 嶺南語文學(第13輯)

경북방언의 성조(1966 b : 66)

O……짧고 높은 성조

V……짧고 낮은 성조

W……길고 낮은 성조

경상도 방언의 성조(1974 : 34)

O……높고 강한 소리

V……낮고 평탄하며 강한 소리

W……길고 강한 소리

Q……낮고 끝이 올라가는 긴장 불안한 소리

V'……낮고 평탄하며, 약간 강한 소리

F……낮고 약하며, 해이된 소리

이렇게 되면 성조소와 성조형의 구별이 없어져 성조론의 기술이 혼란해질 뿐 아니라 고저와 강약의 자질이 혼용되어 결국은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음성학적 정보를 음운론적 기술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느냐 하는 확고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저와 강약 액센트를 동시에 사용하면 국어 성조론은 더 없이 복잡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1.3 하시모도 만파야로(1973)

경상도 방언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액센트의 음운론적 분석 및 액센트 조직과 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논문이다.<sup>7)</sup>

가령 경상북도의 경산 방언에서 :

번개(電光)－수평조

하늘(天)－하강조

바람(風)－상승조

의 음조상 특징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논의가 출발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국어를 성조언어로 보는 입장을 부정하고 액센트언어로 보려 하고 있다. (같은 글: 18쪽)

“한국어에는 어떠한 accent소가 몇 개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일임을 알게 된다. 요컨대 단어의 어디엔가 붙여진 순수 음운상의

7) 한국어의 액센트형을 편의상 경서형(칠곡), 경동형(경산), 경남형(김해)로 나누어 공식적인 기술을 하고 중세국어의 방점표기에 나타난 음조형을 대비하여 액센트 조직의 변화 원리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징표일 뿐이므로 accent 소라고 하는 특별한 음소 같은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근본 태도는 일본어와 같이 한국어에 있어서도 음절수(또는 모라)와 액센트와의 예언성을 중시하는 견장부회적인 선입견 때문인 것 같다.

물론 동남방언의 성조형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성조의 변별에 의한 기능적 부담량도 제 1 음절이 압도적이라는 분포적 제약 때문에 한국어를 순수한 성조언어로 볼 수 없다는 국어성조론자들의 거의 공통된 지적은 충분한 입증이 될 수는 있지만 동남방언의 언어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음절수(또는 모라)에 의해 액센트형을 예언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성립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가령 “경서형(칠곡)에서 액센트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모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운론의 단계에서는 명사에 오직 액센트의 징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기술하면 충분하다”(같은 글: 22쪽)고 한 부분만 하더라도 수증하기 힘들다.

#### 2.1.4 Ramsey(1974)

함경(북청군) 방언과 경상(김해군) 방언의 액센트 비교 및 중세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우선 이 논문은 같은 경상도 방언이라 하더라도 경북방언과 경남 방언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성조 관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액센트 표지가 없는 명사인 경우에는 “만름”의 첫 음절이 고조가 된다.

- a. 바|람만|름
- b. 그|락니까|만

그러니까 “만름”이라는 토씨는 표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바람”에 표지가 있다면 그 토씨는 전체가 저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람”에 표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같은 글: 112쪽)

그러나 적어도 필자의 관찰로는 경북방언에서 “바람”은 저고형이며, “바람만름”은 저저고저형으로 인식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한편, 함경방언의 액센트형에서 경상방언의 액센트형을 파생시키기 위해

‘액센트 표지를 왼쪽으로 한 음절 옮기는’ 액센트 추이 규칙(Accent Shift Rule)이라는 흥미로운 규칙을 설정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의 언어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여 이런 강력한 규칙을 세우는 것은 다소 무도한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함경방언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2.1.5 문효근(1974)

스펙트로그램에 의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까지 적용하여 성조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sup>8)</sup>

치밀한 음성학적 관찰을 통해 음절 수에 따른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에 대한 자료를 매우 풍부히 제공해 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음운론적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체언의 곡용과 용언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성조의 변동에 대한 음운론적 기제를 명확히 밝혀 주지 못한 느낌이다.

또한 운소와 성조의 개념이 뚜렷한 구분 없이 쓰임을 볼 수 있다.<sup>9)</sup>

이 방언(대구방언)에서는 단음절이나 2음절 어절의 첫머리에서는 장음이 저음으로 나나, 3음절 어절을 지나면 고음으로 소리난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는 장음에서의 고저 대립은 있는 것 같지 않으므로 장음에서의 고저는 말의 뜻을 분화하지 못한다. 이는 한갓 다음절을 발음할 때에 수반되는 비유의적 잉여적 자질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방언에서는 장음에서의 고저는 장음 표시만으로 족하다. (같은 책 : 59)

여기에서 이른바 반복수평토넘과 복합수평토넘을 모두 장음이란 자질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3음절 어절을 지나면 장음이 고음으로 소리난다’는 관찰이 과연 정확한 관찰인지도 매우 의심스럽거니와 성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저의 자질과 함께 장단의 자질을 사용함은 성조론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2.1.6 정연찬(1974)

경상도방언의 성조소를 고, 저, 복합저고조로 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8) 이 논문은 영동방언과 경남·북방언에 대한 공식적기술과 중세국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결합하고 있으나, 영동방언과 중세국어에 대한 검토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9) 운소는 운울소(Prosodic feature)로서 고저 및 장단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성조소(Toneme)는 고저를 나타내는 것이지 장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대부분의 성조론자들이 경남·북의 방언적 차이를 인정하는데 경상도 방언 전체의 성조현상이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독특하기는 하나 과연 그럴지하는 매우 의심스럽다. 가능한 한 언어의 보편성을 찾고자 함이 언어학자의 중대한 책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적 차이를 도의시해버림은 일단성을 위해 특수성을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우선 복합저고조의 문제를 따져 보자.

복합저고조의 음장이 대하여, 그것을 누구나 지적한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변별적 자질로 볼 수는 없을까? 만약이 음장 자질을 기준으로 사용하면 다른 성조에서 쉽게 구별되나, 저조와 고조는 음장에서 서로 구별해 낼 수 없다. 그 때에 다시 고저를 기준하면 저조와 고조는 잘구별해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복합저고조에 음장만이 있고 고저가 없는 것이 아니니, 고저가 있고, 다시 「누구나 지적하는 음장」이 있다면 이 음장은 고저의 단위로 환산됨이 간편하다. (같은 책 : 19~20쪽)

이 복합저고조라고 하는 것은 음장이 양어적 자질에 불과한 경남방언에서는 그 존재적 가치가 무의미하게 되고, 음장이 변별적 기능을 하는 경북방언에서는 문효근(1974)의 저장조(또는 반복수평토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음성적으로는 ‘앞 낮고 뒤가 약간 높은’ 인상을 주나 음운론적으로는 마땅히 ‘저저’의 두 모라로 처리함이 무난할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음언부의 성조 기술에 있어서 어간의 음절수와 어간 발음의 음성적 환경에 따라 매우 복잡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론이 이른바 초분절음소인 성조를 설명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약간은 의심스럽다.

### 2.1.7 김차균(1980)

생성음운론의 이론과 방법을 국어성조론에 도입한 획기적인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획기성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방언 조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보자 선정에서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논자 자신이 경남방언의 화자이긴

10) 제보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방언학 관례의 여러 개론서에 잘 나타나 있으나 대체로 말해서 연령적으로 60대 이후(노년층), 10대 후반(소년층)이 적합하고, 태어나서부터 퇴직 출일이 거의 없는 토박이로서, 거주지 자체가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으로 특수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적어도 3대 정도는 살아온 집안의 자손이면 무난할 것이다.

하나 20대의 학생, 또는 40대의 농민을 주체보자로 선정한 것은 연령층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여러 체보자를 통해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미세한 방언적 차이를 정확히 발견해 내기가 힘든 것이다.

다음으로 초기 생성음운론의 너무 강력한 이론, 즉 지나친 추상성과 일반성의 추구에서 오는 결함이다. 체계 성조형은 음운론에서의 기저형으로, 표면 성조형은 음성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체계 성조형, 어절 성조형, 표면 성조형, 음조형, 운율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추상음운론에서 구체음운론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조 기술의 단위에 있어서도 작제는 형태소에서, 크게는 문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바, 문장 단위를 국어에서 성조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다. 가령,

“철수가 부산에 간다.”

고 했을 경우, 화자가 강조하려는 어절에 따라 음성적으로 약간의 강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성조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 2.1.8 정국(1980)

대구방언의 성조를 기능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독특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11)</sup>

대구방언 성조의 기저에는 ‘양극화’(Polarizing)액센트와 ‘수평화’(Leveling)액센트라는 두 개의 기능적 액센트가 있어서, 전자는 HL, 또는 LH같은 양극화된 성조형을 만들고, 후자는 HH 같은 수평화된 성조형을 만들어냄으로써 양자간의 최선의 대립을 이룩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배(腹)+가’를 HH로, ‘가지(枝)+가’를 HHL로 보았을 경우, 과연 경북방언의 화자들이 이것들을 ‘고고조’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경북방언에는 고고조가 없다는 다른 성조론자들의 주장은 전연 근거가 없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더우기 누구나 인정하는 ‘저저조’에 대해서는 오히려 LL이 기능적 관점에서 대구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11) 논자는 이 논문에서 기능론을 증시하여 ‘적극기능’(Positive Functions)이란 단순히 변별적인 것을 넘어서서 중화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변별성을 적극적으로 높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대립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기능 등을 가리키는 바 인간 언어의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너무 설명에만 치우친 나머지 엄연한 언어 사실을 의면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 2.1.9 김성환(1983)

경북방언의 성조의 변이 양상과 규칙성을 찾기 위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월 속에서의 성조형을 따지면 소기의 성과가 나오기 힘들게 된다. 문말어미에서의 억양 문제를 성조로 처리하려는 방법도 문제려니와 월 속에서의 성조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규칙성의 발견 같은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끝나 버린것 같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성조 관찰에 의한 성조형의 설정문제이다.

두 음절 체언에서는 /저·고/형, /고·저/형, /저·저/형, /고·고/형 등 네 가지 형이 있을 수 있지만, /저·저/형과, /고·고/형은 서로 대립을 이루지 못하고 전후에 다른 형의 성조와 결합할 때만 성조형의 변화가 나타날 뿐이므로 /저·고/형, /고·저/형, /고·고/형 등 3가지 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글: 69쪽)

경북방언에 /저·저/형은 없고 /고·고/형은 있다는 것은 다른 성조론자들과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여기에서 /고·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관찰의 부정확성에서 기인한 결과이며, /고·고/형이라고 한 ‘소매’(袂) ‘피리’(笛)는 각각 /저·저/형, /고·저/형으로 분석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고·고/형이 없어지는 대신 이유없이 제외시킨 /저·저/형이 존재하게 된다.

### 2.1.10 조현숙(1985)

경북방언의 운율체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 논문에서 우선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성조소의 설정 문제일 것 같다. 운소의 개념으로서 고저와 장단을 도입해놓고는 성조소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고저와 장단의 자질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성조소를 고·중·저의 3단체제로 보고 있다. 과연 경북방언에서 중조와 저조가 어느 정도 변별적으로 실현되고 화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핵심은 ‘악센트 이동규칙’(ASR)이라고 하는 성조규칙이다.<sup>12)</sup> 곡용에서의 ‘악센트 이동규칙 1’은 ‘어말 악센트를 지닌 명사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곡용어미가 결합하면 어간의 악센트가 어미

12) 이런 발상은 Ramsey(1974)가 설정한 ‘액센트 추이규칙’에서 영향받은 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쪽으로 한 음절 이동하는’ (같은 글 : 32) 것인데 ‘배」(梨)+꺼정→배‘꺼정’으로, ‘바람(風)+만름→바람만름’으로 되는 것은 실은 억센트의 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간과 어미가 각각 ‘고+고’로 연결될 때 앞의 ‘고’가 ‘저’로 되는 일종의 이화규칙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경북방언에서는 ‘고고형’의 성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어를 형성할 경우에도 ‘콩’(豆)+밭(田)’처럼 ‘고+고’가 결합하면 성조형은 ‘저고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활용에서의 ‘악센트 이동규칙 2’는 ‘어두 악센트’를 가진 1음절 용언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두악센트가 1음절 어미쪽으로 이동하는’(같은 글 : 40) 것인데, 이것 역시 악센트 이동과는 무관한 현상이다. 1음절 용언어간은 1음절 뿐인데 악센트가 이동할 자리가 없으며, 성조의 변동이 음소의 자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여기에서 변칙 등사어간 ‘걸—(步)’이 자음 어미 앞에서는 ‘걸—’으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걸—’로 실현되면서 어간이 ‘고조’로 실현되는 것은 공식적인 음운현상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이미 어휘부에 존재하는 어휘화된 교체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sup>13)</sup> 그렇다면 어간의 악센트 이동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 규칙은 자연 소멸하게 된다.

## 2.2 성조소

경북방언의 성조소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 동남방언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논문	성조소	대상지역
허웅(1954)	고, 중, 저	경상도
김영만(1966 a, b)	{고, 저, 장 고, 중, 저	경북 경남
정연찬(1974)	저, 고, 복합	경상도
문호근(1974)	{고, 중, 저 고, 저(장, 단)	경남 경북
Ramsey(1974)	고, 저	경상도
김차균(1980)	고, 중, 저	경상도
정국(1980)	고, 저	경북

13) 어미의 자음과 모음앞에서 나타내는 교체형이 어휘화된 교체형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 최명옥(1985).

김성환(1983)	고, 저	경북
조현숙(1985)	고, 중, 저	경북

위의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경북방언의 성조에 대해서 말한다면 경남 출신의 성조론자들의 견해는 고, 중, 저 3단계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경북 출신의 성조론자들의 견해는 고, 저 2단계계가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어성조론의 위치가 아직은 불안정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적어도 경북방언의 성조소는 고, 저 2단계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며, 다만 ‘저장조’ 또는 ‘복합저고조’로 불리는 장음처리에 있어서는 문효근(1974)의 ‘반복수평토남’의 개념을 받아들여 1음절 2모라 ‘저저조’로 해석하며, 음장의 자질은 분절음소론의 모음체제(단모음 vs. 장모음)에 넘기면 될 것이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left[ \begin{array}{l} \text{말(馬)} : \text{고} \\ \text{말(斗)} : \text{저} \\ \text{말(言)} : \text{저저}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배(梨)} : \text{고} \\ \text{배(腹)} : \text{저} \\ \text{배(倍)} : \text{저저} \end{array} \right.$
---	---

### 2.3 성조형

우선 경상도방언의 성조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허웅(1954) : ① 고, 중, 저 ② 고중, 중중, 저중, 고고, 중고 ③ 중고중, 고중중, 고고중, 저중중 ④ 중고중중, 고중중중, 고고중중, 고고고중, 저중중중

김영만(1966 a, b) : O(승장조), V(정단조), W(장음조)

경연환(1974) : ① 고, 저, 복합고저 ② 고저, 저저, 저고, 복저 ③ 고저저, 저고저, 복저저 ④ 고저저저, 저저저저, 복저저저

문효근(1974) : ① 고, 장, 단, 고-저, 저-고 ② 저고, 고저, 저저, 장저, 저-고저 ③ 저고저, 고저저, 고고저, 저저고, 장고저, 저저-고저 ④ 저저고저

Ramsey(1974) : ① 저, 고 ② 저고 ③ 저저저, 저저고, 저고저, 고저저

김차균(1980) : L, LM, M, M<sup>2</sup>, HHM<sub>0</sub>, HM<sub>0</sub>, MH, M<sub>0</sub>

정국(1980) : (L) H(L<sub>1</sub>), (L) HH(L<sub>1</sub>)

김성환(1983) : ① 고, 저 ② 저고, 고저, 고고 ③ 저고저, 고저저, 고고저

조현숙(1985) : ① 고, 중, 저 ② 고중, 중고, 중중, 저중 ③ 고중중, 중고중, 중중고, 저중중

위에 제시된 다양한 성조형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절에서 ‘고조형’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필자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여러 성조형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음절수에 관계없이 저조로만 실현되는 부류가 있고 1음절, 또는 다음절에서 고조가 한 개 들어 있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sup>14)</sup> 이들 두 부류 중 전자를 편의상 ‘L<sub>1</sub>형’이라 하고 후자를 ‘L<sub>0</sub> HL<sub>0</sub>형’이라 하여 체언에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L<sub>1</sub>형 : 저조로만 이루어진 성조형

짚(藁) : L, 말(言) : LL, 물(水) : L, 꿀(蜜) : L, [머구(絞) : LL, 구름(雲) : LL, 가지(枝) : LL, 사람(人) : LLL, 사마구(痣) : LLLL

② L<sub>0</sub>HL<sub>0</sub>형 : 음절수에 관계없이 고조가 한 개 있는 형

집(家) : H, 말(馬) : H, 꽃(花) : H, 콩(豆) : H, 가지(種) : HL, 가지(茄子) : LH, 자리(席) : HL, 하늘(天) : HL, 바늘(針) : HL, 메느리(子婦) : HLL, 바람(風) : LH, 사다리(梯) : LLH, 까마구(烏) : LHL, 아버지(父) : LHL, 가시개(鉞) : LHL

#### 2.4 성조의 변동과 규칙

성조의 변동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활용과 곡용에 대한 풍부한 언어자료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자립분절음운론<sup>15)</sup>에 입각하여 두어 가지의 성조규칙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고조와 저조가 결합하면 성조의 변동이 없으나 고조와 고조가 결합하면 성조가 변동하는 현상이 있다.

- (1) ㄱ. 집(家) + 도(HL) → 집도(HL)  
 ㄴ. 집(家) + 부터(HHL) → 집부터(LHL)
- (2) CVC CV CV CVC CV CV  
       |   |   |   |   |   |  
       H   H   L   L   H   L

위의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 본고의 요지는 1986. 5.25 학문사에서 개최된 113차 영남어문학회 월례발표회에서 구두 발표하였는데, 특히 김영만 교수님의 성조형에 대한 친절한 조언에 대해 다시 감사할 드린다.

15) 자립분절음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  
 Leben, W.R. (1973), Goldsmith, J.A. (1973), Haraguchi (1977) 등

(3) 역행이화규칙(Regressive Dissimilation Rule)

$$H \rightarrow L / \# - + H(L)$$

또 다른 성조현상을 관찰해 보면, 저조와 고조가 결합하면 후행하는 고조가 선행하는 저조에 동화되어 저조로 실현됨을 볼 수 있다.

(4) ㄱ. 짚(藥) + 도(LL) → 짚도(LL)

ㄴ. 짚(藥) + 부터(LHL) → 짚부터(LLL)

(5) CVC CV CV      CVC CV CV  
       |    |    |      |    |    |  
       L   H   L      L   L   L

이것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순행동화규칙(PrOgressive Assimilation Rule)

$$H \rightarrow L / L + -$$

이상과 같이 시험적으로 몇 개의 규칙을 검토해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 III.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어 성조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을 피상적으로나마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확고한 위치에 오르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즉, 동남방언을 성조언어로 보지 않고 일본어와 같은 액센트언어로 보는 입장도 더러 있고, 경남·북의 방언적 차이를 거의 무시해버린 나머지 토박이 화자의 언어능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도 있고, 성조소나 성조형에 대한 각자의 견해차가 많고, 성조현상에 대한 관찰의 정확성이 의심나는 부분도 더러 있었다. 좀더 면밀한 조사와 확고한 기준에 의한 성조론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동남방언 중에서도 적어도 경북방언의 성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성조소에 있어서 고(H), 저(L) 2단체제면 충분하고, 성조형은 L<sub>1</sub>형과 L<sub>0</sub>HL<sub>0</sub>형의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절의 성조형에서 ‘고고조’를 주장하는 논자도 더러 있으나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

3. 최근에 등장한 자립분절음운론은 동남방언의 성조 연구를 위해서 본격

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료의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앞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김성환(1983), “경북방언 성조의 변이에 관하여,” 『언어연구』 3
- 김영만(1966 a), “경남방언의 성조 연구,” 『국어국문학』 31
- \_\_\_\_\_ (1966 b), “방점과 현대국어 성조의 비교,” 『한글』 137
- \_\_\_\_\_ (1972), “고급성조 비교 재론—다음절어의 유형과 비교공식,” 『한글』 149
- \_\_\_\_\_ (1972), “방점표기의 원칙과 성조 변화,” 『국어국문학』 64
- 김완진(1973),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탑출판사
-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체계』, 과학사
- 문효근(1962), “대구방언의 고저·장단,” 『인문과학』(연세대) 7
- \_\_\_\_\_ (1974), 『한국어성조의 분석적 연구』, 세종출판공사
- 박종수(1980), “경남방언 음조형의 음성학적 기술법,” 『진주문화』 1
- \_\_\_\_\_ (1981), “경남방언의 음조소 분석,” 『진주문화』 2
- 이명우(1974), “동래방언 성조의 연구—동사류 어간과 어미결합에 따른 성조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 이상억(1977), “자립분절음운론과 국어,” 『이승녕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 정연찬(1960), “15세기 국어의 TONE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8
- \_\_\_\_\_ (1968), “경상도 방언의 성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이승녕박사 송수 기념논총』
- \_\_\_\_\_ (1974), 『경상도 방언 성조 연구』, 국어학총서 5, 탑출판사
- 정 국(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Ph. D.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 조현숙(1985), “경북방언의 운율체계 연구—봉화지역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66
- 최영옥(1979), “동남방언의 연구와 검토,” 『방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 \_\_\_\_\_ (1985), “번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14
- 허 응(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국어학논문선』 6 (1977), 민중서관.
- 하시모도 만따야로(1973), “한국어 액센트의 음운론—특히 경상도 방언의 액센트를 중심으로—”, 『한글』 151
- Ramsey, S.R. (1974), “함경·경상방언의 액센트 연구,” 『국어학』 2
- Pike, K.L. (1948), *Tone Languages*, Ann Arbor, Michigan, U.S.A.

- Goldsmith, J. A.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India University.
- Haraguchi, Shosuke (1977), *The Tone Pattern of Japanese: An Auto-segmental theory of Tonology*, Tokyo.
- Leben, W.R. (1973), *Suprasegmental Phonology*, Garland Publishing, Inc.
- Hulest, H. and Smith, N.(1982), *An Overview of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Fortis Publications U.S.A
- Halle, M. and Vergnaud, J.(1982). *On the Framework of Autosegmental Phonology,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Fortis Publications U.S.A